

민주 공동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전북 찾은 한준호 의원

“전북 민심 얻는데 온 힘”

“정권 수복 바라는  
도민 결심 느껴져  
한 표가 희망의 불씨”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북을 방문, “정권 수복을 바라는 도민들의 결심이 현장에서 분명하게 느껴진다”며 “전북 민심을 얻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한 최고위원은 “전북은 수도권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라며 “지역을 돌며 만난 도민들은 이미 투표에 대한 결정을 내렸고, 가족 모두 함께하겠다는 목소리도 들려왔다”고 소개했다.

전주 출신인 그는 현재 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골목골목 선대위 전북위원회’를 맡고 있으며, 선거운동 기간 동안 도내 14개 시·군을 누비며 민심을 직접 듣고 있다.

그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아말로 정치의 나침반”이라며 “마지막까지 낮은 자세로 도민과 함께 호흡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도 피하지 않았다. 한 의원은 “갑제에서



한준호(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동선대위원장이 2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중간점검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만난 어르신께서 ‘윤석열 정부는 참 경우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현재 정치 상황을 정확히 지적한 말”이라며 “스스로 만든 대통령에 책임지지 않고 극단적 성향의 후보를 내세우는 모습은 국민을 무시한 정치 행태”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그는 “정치는 싸움이 아닌 건전한 경쟁이 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책 공약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지를 놓고 남원(전북)과 아산(충남) 간 중북 공약이 논란이 된 데 대해, 그

는 “두 지역 모두 공약 제안을 올렸고, 통합 조를 과정에서 함께 반영된 것”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선거는 1표 차이로 승패가 갈릴 수 있는 싸움”이라며 “지난 대선에서의 아쉬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마지막까지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후보와 함께 책임 있는 변화, 안정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도민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서 유세 나선 민주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

“전북, 대선 승리 핵심지”

“이번 대선, 민주주의·민생경제 회복 위한 전환점  
전북서 압도적 지지 받아 반드시 정권교체 이룰 것”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전북을 찾아 청년과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민심을 청취하고, 전주시 곳곳을 돌며 거리 유세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첫날인 20일 전북특별자치도당 선대위 관계자들과 만나 지역 선거 전략을 점검하며 “전북은 대선 승리의 핵심 지역”이라며 “도민의 민심을 겸허히 듣고, 끝까지 민생 회

복과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1일에는 전북도당 회의실에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지리와 창업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위원장은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상공회의소에서는 지역 경제인들과 만나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새 정부가 곧바로 국정 해선에 나설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점심시간에는 완산구 효자동 일대에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 거리 유세를 펼쳤다. 이 자리에는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시·도의원들도 함께해 지지를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거리 유세에서 “이번 대선은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라며 “전북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지역 밀착형 선거운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김부겸 민주 총괄선대위장  
전북 상공인과 정책간담회

전북지역 상공인들이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소외와 홀대 등 역대 정권의 지역 불균형 발전 정책으로 비관 끝에 몰린 전북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21일 전주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의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전주상공회의소 김경태 회장, 익산상공회의소 김원요 회장, 김제상공회의소 김운권 회장을 비롯한 전북지역 상공인 20여 명이 참석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과 기업 경영 애로 등 지역경제



21일 전주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전북지역 상공인 간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태 전주상의 회장은 “그간 우리 전북은 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으나,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상황을 수차례 경험해 왔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중앙 정치권과 지역 경제계 간의 실질적인 협력 채널이 마련되고,

지속 가능한 동반자 관계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태 회장은 제21대 대선 관련 전북지역 상공인들이 선정한 국가균형발전,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교통 및 산업 인프라, 산업계 혁신성과 성장 촉진 등 총 4개 분야, 23개의 세부 공약이 담긴 대선공약집을 전달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자치도 대표도서관 착공식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전주시 덕진구 장동 일원에서 ‘전북 대표도서관’ 착공식을 갖고, 2027년 개관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더 잘하겠습니다”

민주 원진무 선대위 ‘큰절’  
지역 유권자들에 각오 전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이끄는 민주 원진무 선거대책위원회가 유세 현장마다 유권자들에겐 큰절을 올리며 “더 잘하겠다”는 각오를 전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자세로 한 표를 호소하는 간절함과 진정성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다.

특히, 원진무 선대위는 안호영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도·군의원,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완주·진안·무주 전역을 돌며 ‘경청투어’를 펼치고 있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겠다는 자세로 1대1 맞춤형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무주=전문선 기자



한국노총 전주지역지부 “이재명 지지 선언”

한국노총 전주시지역지부는 지난 20일 노총 지역본부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한국노총 전주시지역지부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유연화를 기조로 회계공시, 타임오프 기획감사 등을 통해 노조를 탄압하고 노조법 2.3조 개정 거부권행사, 5인이하 중대해체처벌법 적용 유예 시도, 주 69시간제 추진 등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는 노동개악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정당으로 결정하고 대선승리를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의장단은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돼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철 의장은 “현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선택의 순간에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며, “무너진 전북의 자존심을 제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전북에서 90% 이상 투표를과 93%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오상근 기자



한국노총 전주시지역지부는 지난 20일 노총 지역본부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 선언을 한 가운데, 조합원들이 엄지척을 하고 있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 전북자치도 발전연합회·부안청년연합

제2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 움직임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연합회와 부안청년연합도 힘을 보탰다.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연합회 “이재명만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후보”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연합회(회장 최한양) 회원 20여명은 2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위기를 돌파하고, 지방의 미래를 밝힐 유일한 후보는 이재명”이라며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한양 회장은 “지난 3년간 기득권에 의해 철저히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뿐”이라며 “민생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준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과 실천력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박병진 회원은 “이재명 후보는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인물”이라며 “진정한 개혁, 실질적인 변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 온 그에게서만 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애란 회원은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국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대동세상, 바로 그 비전을 실현할 유일한 후보가 이재명”

이라며 “민주와 평화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전북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연합회는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인 연대와 참여 속에 지난해 5월부터 여러차례 준비모임을 거쳐 10월 30일 창립된 민간 순수 자원봉사단체로, 전주전 평화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에 지역 회장과 임원이 조직돼 있으며, 20개 직능 분과를 구성하여 회장 및 임원 중심으로 총 120여 명의 임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부안청년연합 “청년의 미래 책임질 후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부안청년연합(회장 최규용) 회원 10여명이 “이재명 후보야말로 부안과 청년의 미래를 바꿀 유일한 대안”이라며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무대”라고 규정했다.

특히 검찰권을 앞세운 정치적 탄압과 재벌 특혜, 민생 외면을 문제 삼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노동자, 농민 등 서민에게 전가됐다”고 비판했다.

최규용 회장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무능한 정권의 추종자일 뿐”

이라며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반성조차 하지 못하는 인물이 대통령 후보 자격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서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도 거론됐다. 이들은 “무책임한 준비와 대응으로 전북의 명예를 실추시킨 장본인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라며 “잼버리 기간 중 노골적인 전북 비하 발언은 아직도 생생하다”고 지적했다.

청년연합은 이재명 후보가 부안에 제시한 주요 공약도 소개했다.

RE100 산업단지과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블루카본 해양치유 조성, 해양관광 자원 개발, 노을대교 착공과 확장, 가력항의 국가어항 지정과 새만금 연결도로 신설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계획은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성장 전략”이라며, “부안이 처한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사람은 이재명 후보”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과 에너지 분야 공약도 눈에 띄었다. 청년연합은 “쌀값 안정을 위한 대체작물 기반 조성, 영농형 태양광 발전 지원, 지역 전기 자급 시스템 구축, 햇빛·바람 연금 도입 등은 농도 전북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 미래를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